

News

자금시장 경색에 은행권, 채안펀드 협조·은행채 발행 최소화

연합뉴스

은행들 CP·ABCP 매입 추진...RP 매수 등으로 유동성 공급 확대
금융당국, 주요은행 부행장과 금융시장 점검회의

돈 구할 필요 없어진 은행, 예·적금 금리 상승세 둔화되나

머니투데이

금융위원회가 LCR 규제 정상화 계획을 6개월 미뤄 내년 6월말까지 맞추면 됨
유동성 확보 유인은 없어진 반면 조달 비용 축소 필요성은 부각

4분기 국내은행 기업 대출태도 '강화' 전망...가계 '완화' 지속

조세일보

금융기관 여신 책임자, 올해 4분기 중 국내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강화, 가계에 대해서는 완화적 태도를 지속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모든 업권에서 강화

은행권 외화대출 200조...환율 공포에 달려 쌓는 기업들

데일리안

국내 은행들이 내준 외화대출이 1년 새 40조원 넘게 불어나면서 200조원에 육박
환율이 더 오르기 전에 달러를 미리 쌓아둬야 한다는 기업의 불안 심리가 작용한 결과

생보사마저 4분기 '채권 발행' 중단 검토...RBC 건전성 우려도 '버티기'

뉴스핌

금융그룹 산하 AA급 생보사, 자본확충 중단 검토
보험업계, 4Q 자본성 증권 발행 일시 중단 분위기

PF 규모 가장 크다는데...'보험사 부동산PF' 위험은?

뉴스1

업계 "안전자산인 대단지 아파트 위주...리스크 낮아"
연체율은 증가세..."부동산 침체 본격화 대비해야"

CFD 개인 전문투자자 급증...증권사는 시장 선점 혈안

조선비즈

증권사, 잇달아 해외 CFD 서비스 확장, CFD 개인 전문 투자자, 2년 만에 8배 ↑
하락장에서는 반대매매 위험 있어

홍콩H지수 불뚝 튼 ELS...2년전 마진콜 악몽 되살아나

매일경제

2020년초 코로나 발생 직후 증시·원화값 동반 하락에 증권사들 마진콜 사태 겪어
올해 달러 유동성 확보에도 홍콩증시 폭락 불안감 커져 마진콜 발생땐 외환시장 우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